

세계 속 열정과 패기의 한인벤처기업인, INKE를 통해 한자리에서 만나다

글 _ 전하진(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의장)

지난 5월 13일 미국 서부 얼바인(Irvine)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INKE Spring 2004'가 개최되었다. 매년 봄에는 해외에서, 가을 총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는 한민족 벤처기업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또한 INKE와 협력하고자 하는 전세계 어떤 민족의 기업인들과도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15개 도시에 설립된 INKE 지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이미 1997년부터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재미한인벤처기업가협회(KASE, Korean American Society of

Entrepreneur) 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성공리에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협회 장흥순 회장을 비롯한 변대규·김형순·김태희·여미정·이영남·오형근 부회장이 참석해 주었고, INKE 이강현 동경 의장, 레이몬드 강(Raymond Kang) 뉴욕의장, 김만기 워싱턴의장, 김병기 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미국 측에서는 KASE 창립자인 이계복 대표, KASE 남가주회장인 스티브 리(Steve Lee), INKE LA의장인 브라이언 정(Brian Chung)이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었다.

기조연설자로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나스닥 상장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리퀴드메탈(LiquidMetal)의 존 강(John

한미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열린 디너크루즈



Kang)대표와 톰 게파트(Tom Gephart)가 함께 해 주었다. 외국 인사로는 전 UC Irvine 경영대학원장인 데이빗 블레이크(David H. Blake), 전 인그램 마이크로(Ingram Micro)사장인 데이빗 루트리지(David Rutledge), 오렌지코스트벤처그룹(Orange Coast Venture Group)의 매트 로슨(Matt Lawson)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래리 아그란(Larry Agran) 앨바인 시장도 점심세션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패기의 한인 벤처기업가 한자리에 모여

INKE Spring은 올해로 벌써 네 번째이다. 지금까지 뉴욕, 북경, 베를린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짜임새 있고 실속 있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베를린 INKE Spring을 주도했던 프랑크푸르트 INKE 전요섭 의장은 그 행사를 계기로 프랑크푸르트에 HMBC(Han-Mein Business Center)을 설립하게 되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INKE 행사로 인해 그 곳 독일 현지인들의 우리를 보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 곳 앨바인의 숨은 실력자들을 우리 행사에 초청하여 그들이 한국 벤처기업가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만남은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문서로 정보도 교환해도 만나서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못하다.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열정과 패기의 젊

은 벤처기업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이디어가 샘솟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는 뜻 깊은 일이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1.5세대, 2세대 재미교포사업가,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우리의 미래였다.

INKE, 글로벌 파트너와의 대화 출발점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주제는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였다. 우리가 INKE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무작정 해외에 나가고 본다. 지시를 만들거나 주변 소개로 만난 비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도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을 내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준비와 전략으로 글로벌시장에 데뷔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

산업 사회의 수출은 품질과 가격, 납기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래서 말이 좀 안통해도, 공장이 좀 어설퍼도 수출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 사회의 글로벌 협력은 합작, 투자, 인수합병,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제한적 자원을 글로벌 파트너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품질과 가격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갖고



1. 모닝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Tom Gephart 2. 협의 중인 INKE회원들 3. 수출 및 투자상담을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4

5

4. 행사를 축하하고 참석자를 격려하는 엘바인 Larry Agran 사장

5. 웰컴디너에서 한담 중인 참가자들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트너들 간의 신뢰구축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파트너들 간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신뢰구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또 매력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거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뢰받을 수 있게 패키징을 해야 최소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우리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려 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다. 박세리 선수가 성공을 하기 전에는 LPGA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박세리 선수 이후 LPGA는 우리 남자들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또 수많은 제2, 제3의 박세리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박세리 선수의 도전과 신뢰가 결국 많은 선수들이 보다 쉽게 LPGA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우리 벤처기업들도 글로벌 진출에서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글로벌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벤처기업 글로벌화 도울 방안 논의

INKE 이사회는 바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개별 기업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

찬 일들을 정부와 협회가 나서서 도와주어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멋지게 데뷔시켜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가진 기술이나 경쟁력을 100% 아니 120%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연혁이나 조직도가 앞에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아무리 미국의 유명한 벤처캐피탈을 만나도 그 안에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 속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INKE 김병기 이사 주장대로 사업계획서의 ABC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적어도 큰 상대를 만나 협상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INKE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데뷔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기로 했다. 전문가들로 후원 조직을 만들어 기업의 글로벌 데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날 이뤄진 기조연설, 패널토론, 선상디너미팅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시 확인했으며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스티브 리의 솔직한 고백이 생각난다. “저는 13살에 미국에 와서 한국을 몰랐고 또 창피해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미국인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스턴컨설팅에서 자청하여 한국 근무를 하면서 한국을 알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흥분됩니다.”

우리의 조국은 선배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세계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리더로서의 비전을 실천하는 우리 후손들의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INKE를 통해 만나는 세계 속의 우리 민족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다. 벌써부터 가을에 개최될 INKE총회가 기다려진다.